출 장 복 명 서

2009. 7.

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
한반도·글로벌국토전략센터

김 영 봉 센 터 장
김 은 정 책임연구원

1. 출장의 개요

1. 출장목적

○ 행정안전부 수탁연구인 '비무장지대 인근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'의 일환으로 통일 전후의 동-서독과 독일-폴란드, 독일-체코 간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평화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

○ 현지 공무원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조사 및 소규모 워크샵을 통해 심도있는 조사 실시, 사례지역 답사 및 자료 수집

2. 출장국 및 방문도시

○ 독일

- 메클렌부르크-포어폼메른 州: 샬제(Schaalsee) 호수
- 비아드리나市: Euregio Pro Europa(독일-폴란드 국경협력 사업) 박람회장
- 캠니츠市: 캠니츠 공대
- 플라우엔市: 그뤼네스반트(그린벨트) 지역, 뫼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
- 바이로이트市: 오버프랑켄 행정관구

○ 폴란드

- 폴란드 측 슬루비스市-독일 측 프랑크푸르트(오더)市: 슬루비스 대학(폴란드 측)-비아드리나 대학(독일 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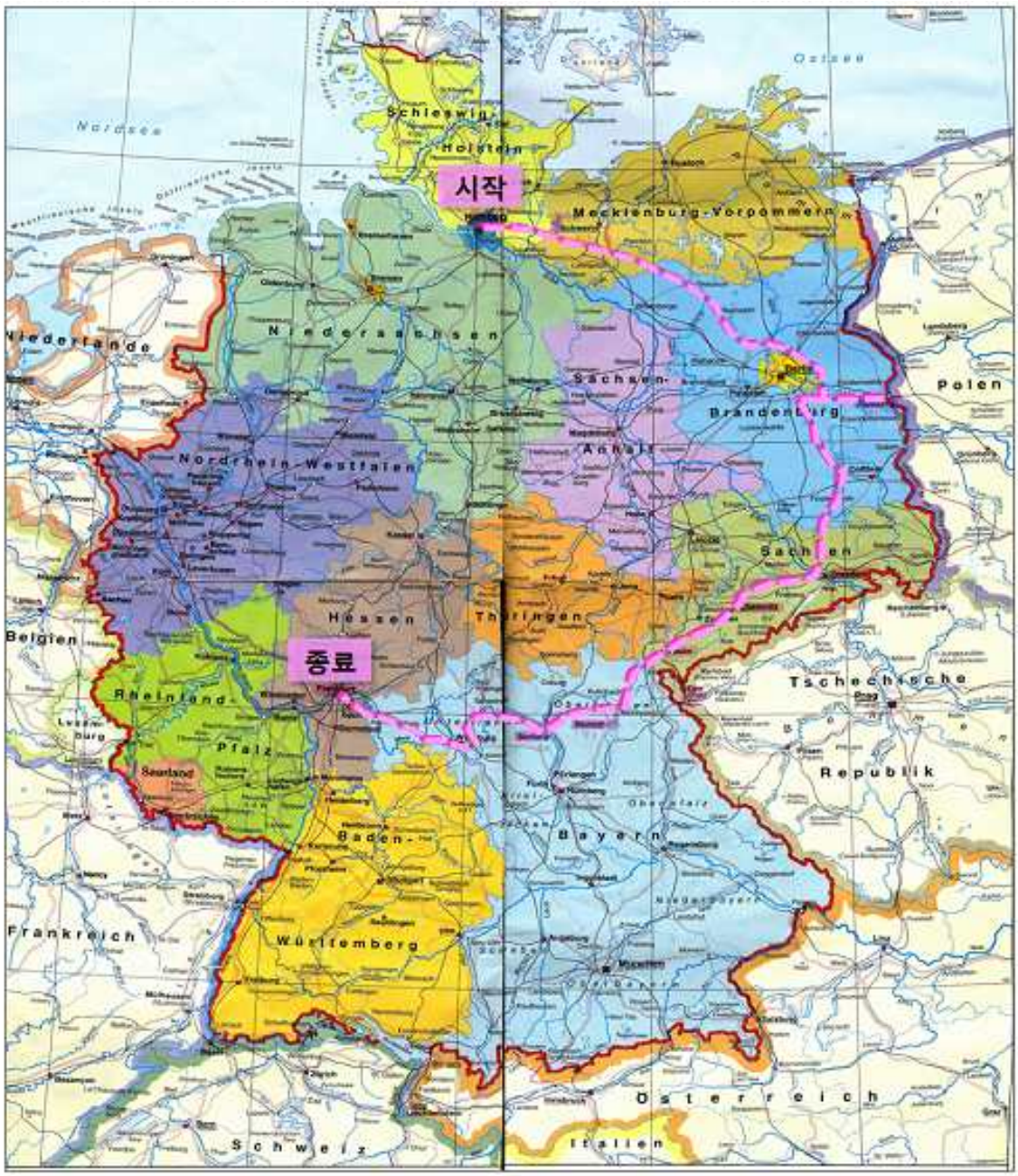
○ 체코

- 헵(Cheb)市: 헵 시청

3. 출장기간 : 2009. 6. 28(일)~7. 5(일)

.

<출장 중 이동경로>


시작
종료
Nordsee
Ostsee
Schleswig-Holstein
Mecklenburg-Vorpommern
Niedersachsen
Niederlande
Sachsen-Anhalt
Brandenburg
Polen
Nordrhein-Westfalen
Sachsen
Hessen
Thüringen
Belgien
Rheinland-Pfalz
Saarland
Tschechische Republik
Bayern
Baden-Württemberg
Frankreich
Schweiz
Österreich
Italien

2. 출장조사 수행 내용

1) 6월 29일(월)

□ 샬제(Schaalsee) 호수

○ 위치

- 메클렌부르크-포어포메른 州 샬제(Schaalsee) 호수
- 슐레스비히 홀슈타인(Schleswig-Holstein)주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(Mecklenburg-Vorpommern)주의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

<샬제(Schaalsee) 호수의 위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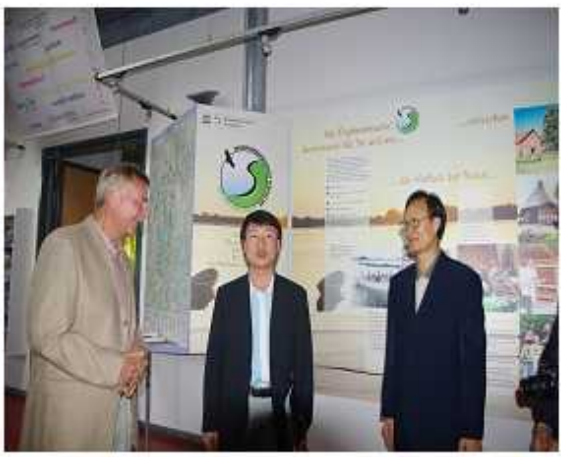


○ 설립 배경 및 내용

- 주 경계는 구 동-서독 접경지역으로 구 동독 측 접경지역은 5km의 통제구역(일종의 민통선)이 설정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음
- 통일 직후 Zarrentin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보전지구로 지정되었고, 200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
- 샬제지구의 경계는 ① 자연적 지식의 토대에서 경관보호지역을 기본으로 하여, ②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설정함
- 2007년 설문조사에 의하면, 샬제지구를 찾는 관광객의 79%가 일일관광객이고, 21%가 숙박관광객으로 이루어졌고, 2007년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음
- 샬제지구의 관리 및 운영비의 약 31%(2007년 기준)이 유네스코의 펀드로 충당됨
- 샬제팔후스 안내소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교육기능과 정보제공기능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

<샬제 팔후스 안내소장 영접 및 브리핑>





.

<샬제 팔후스 안내소 내부시설>







<샬제지구 내 보행데크 및 주변 환경>







.

<샬제지구 내 습지>







<인근 뢰겔린호수 전경 및 수중생태계>





○ 주변 시설

- 샬제지구는 구 동-서독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, 현재까지도 구 동-서독 접경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역들이 산재함
- 대표적인 장소로는 그렌츠후스 접경지역 박물관이 있는데, 이곳은 동-서독 시절의 접경지역 시설물 특히, 동독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순찰로, 지뢰지대, 철조망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음

<그렌츠후스 접경지역 박물관 내 시설>



2) 6월 30일(화)

□ 유로리전 프로젝트(Euregio Pro Europa), 비아드리나市

○ 접견단

- 토비아스 자이파르트(사무총장), 폴크만(담당관), 프랑크 크추케(상공회의소 담당관)

○ Euregio Pro Europa 개요

- 유럽연합(EU)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50개 접경지역 협력사업 중 하나로 독일의 비아드리나시와 폴란드의 슬루비스시 간 협력사업임
- 유로리전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접경지역의 낙후된 경제기반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임
- 유로리전 프로젝트는 15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, 유럽연합 차원에서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실질적 협력은 접경지역의 지자체가 주체가 됨
- 구성은 양 측 시장 및 군수, 대학, 상공회의소, 교회, 노조 등의 단체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, 접경지역 프로젝트의 의사 결정 주체가 됨

<유로리전 프로젝트 현장 설명회>




□ 비아드리나 유럽대학(독일) - 슬루비스 대학(폴란드) 방문

○ 접견단: 야니네 누이켄(비아드리나대학 부총장), 베른드 크루게츠(담당관)

<비아드리나 대학 방문 및 부총장과의 접견>





○ 비아드리나 대학의 개요

- 1991년신설된 학교로 3개 단과대학(경제, 법학, 문학대학)으로 구성되어 있고, 전세계적으로 180개 대학과 협력중이며, 그 중 가장 많은 수는 유럽대학이고, 미주, 호주 등지의 대학과 협력중임
- 비아드리나 대학 학생의 국적은 75개국의 학생으로 구성되고, 독일, 폴란드, 우크라이나, 터키, 러시아 학생들이 많음
- 외국인 학생들 중에는 폴란드 학생이 가장 많고, 지역적으로도 폴란드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 독일과 폴란드 협력관련 연구주제도 상당히 많음
- 접경지역에 위치한 교육기관이므로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대학의 역할로, 이 대학은 인접국가인 폴란드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음

.

<비아드리나 대학 캠퍼스 전경>



○ 조인트 대학(비아드리나-슬루비스 대학) 간 협력

- 비아드리나 대학은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설립한 대학이고, 파트너인 슬루비스 대학은 비아드리나 대학과 폴란드의 Adama Mickiewicza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함
- 기본적으로 두 대학은 독일어와 폴란드어를 사용하여 강의를 듣고, 오더(Oder)강을 사이에 둔 두 개의 캠퍼스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수업을 진행함
- 두 대학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접경지역 연구 및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, 지역의 교육, 문화, 환경 등 지역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됨

.

<오더강을 중심으로 한 독일과 폴란드 국경지역>







주: 오더(Oder)강을 연결하는 다리의 중앙부가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임.

<폴란드 슬루비스 대학 캠퍼스 전경 및 주변지역>









3) 7월 1일(수)

□ 워크샵 및 현지 견학: 통일이전 구 동독시절의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통일이후 복원 작업

○ 접견단: 페더 유르첵(캠니츠공대 지리학과 교수), 울리히 몰터(캠니츠공대 지리학과 연구원)

○ 캠니츠市의 도시계획 개요

- 캠니츠시는 동독시절의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전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고, 현재는 통일 이후 복원작업에 대한 도시계획가들의 다양한 노력들을 찾아 볼 수 있음
- 독일 분단이후 동독 정부는 저예산으로 부족한 주거시설을 대량으로 짓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주거형태인 플라텐바우(공동주택)를 건설하기 시작함
- 통일 이후 플라텐바우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심복원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,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심복원이 한창 진행중임

○ 플라텐바우(공동주택)의 건설 및 재개발

- 캠니츠 시는 외곽을 중심으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약 10여년간 플라텐바우의 건설이 한창 이루어졌고, 총 9만명이 거주 가능한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함
- 통독 직후 32만이었던 캠니츠 시의 인구는 현재 25만 수준으로 인구 유출이 매우 심해졌고, 외곽의 공동주택보다는 도심의 수준높은 주거단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

- 통일 이후 도시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해 플라텐바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아졌고, 플라텐바우 단지 등에서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발생함
- 공동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 전체 1/3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, 약 3만 호의 공동주택이 철거가 된 상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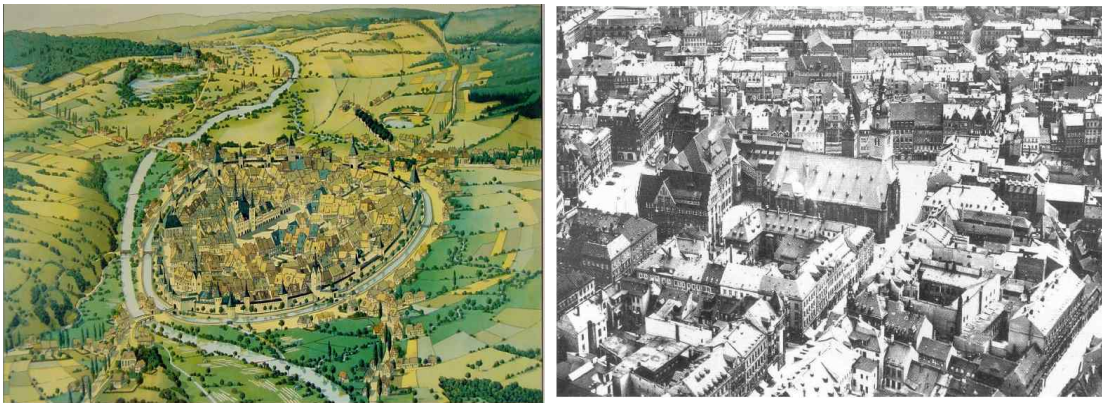
<폐허가 된 플라텐바우(공동주택)>



○ 2차세계대전 이후 캠니츠 도심 복원

- 1840년대 인구 4만명 규모의 수준이던 캠니츠시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발전으로 1930년에 이르러서는 인구 36만의 도시로 발전하였음
- 2차 세계대전 중에 도시 전체가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되었고, 독일 분단 이후 동독시절에는 사회주의의 도시계획의 전형을 보여주는 도시로 성장하여 '칼막스시티(Karl-Marx-Stadt)'로 명명되기도 하였음

<1750년(左)과 1945년(右)의 캠니츠 시내>



-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캠니츠 도심광장 플라자 계획이 있었는데, 공산당 본부건물 앞에 1시간 안에 7,000여명이 행진할 수 있는 규모의 도로건설이 이루어졌음

<칼막스슈타트의 도심도로 형태와 도심 광장에 모인 사람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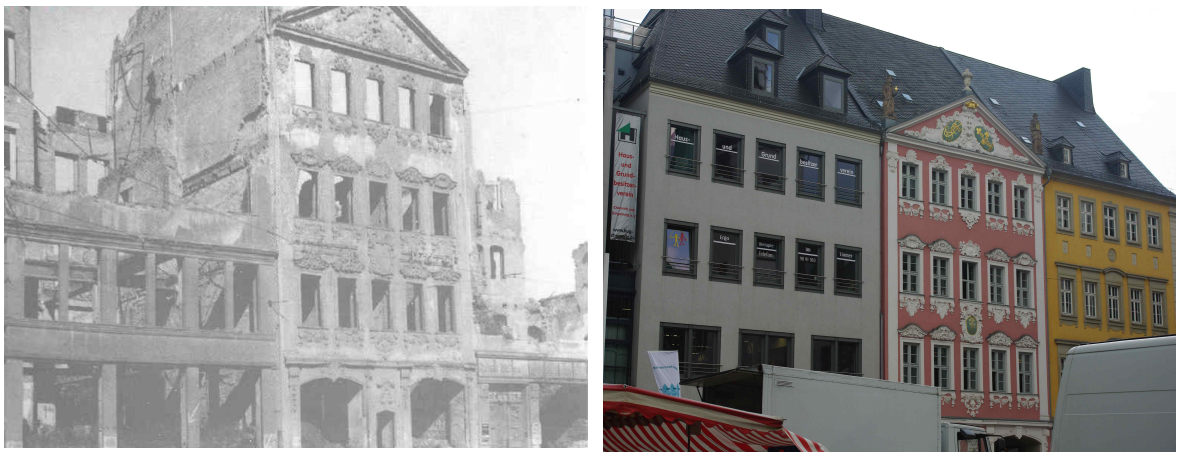


- 독일 통일 이후 20여년간 캠니츠는 도심 복원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고, 현재까지도 도심 곳곳은 복원 및 재건이 한창중임
- 2차 세계대전 중에 폐허가 된 도심이 동독시절에는 보수 및 관리가 되지 않다가 독일 통일 이후 집중적으로 재건이 되고 있고,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도심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
- 공동주택과 건물, 도로, 상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현대화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시계획가들의 부단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

<도심 복원이 한창인 캠니츠시>



<1945년 당시 폭격 받은 건물과 현재 복원 모습>



4) 7월 2일(목)

□ 헵(Cheb) 시청 방문: 독일-체코 간 접경지역 'Euregio Egrensis' 협력사업 브리핑

○ 접견단: 마이클 포스피실(부시장), 슐츠 (접경지역 사업 담당자) 등 6명

○ 헵(Cheb)시의 개요

- 체코는 행정구역이 총 14개로 나뉘고, 칼스바더 행정구역은 14개중 가장 작은 행정구로 인구는 약 30만임
- 칼스바더 행정구역은 3개의 카운티(칼스바트, 소콜로프, 헵)로 구성되어 있고, 헵시는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교통의 입지조건이 매우 좋으며, 경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으나, 사회주의 붕괴이후 예전 산업들이 많이 도산하였음

<포스피실 부시장과의 접견>



- 시 전체적으로 40헥타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약 1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, 현재 약 500개정도를 달성하였음
- 유럽지역은 어디나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프라하와 헵 간의 철로는 체코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철로로 그 역사를 자랑함
- 독일의 아우토반과 견줄 수 있는 도로로 6번고속도로가 있고, 철로는 엘고네트(Egronet) 라는 시스템이 있음

○ 체코-독일 협력사례소개

- 2006년부터 조경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조경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, 시내의 조경계획도 완료하였음
- 헵과 독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연장 협력사업도 추진하여 최근 개통하였음
- 계획중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① 40ha산업지구에 25ha를 추가하는 방안, ② 주택리노베이션 사업 (국가로부터 지원금 1억 5백만 크로네, 약 380만 유로, 확보), ③ 원예 전시회의 확대 계획 등이 있음

<헵시에 대한 소개 및 접경지역 협력사업 브리핑>



○ 유로리전 에그렌시스 프로젝트의 추진현황

- 유럽 전역의 국가 간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프로젝트는 180여 개에 이르고, 유로리전 에그렌시스는 체코와 독일 동부 간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임
- 유로리전 에그렌시스 프로젝트는 체코와 독일의 세 개의 주(바이에른, 튀링엔, 작센)가 포함되는 사업임
- 조직은 바이에른, 작센, 체코에 위치한 세 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되고, 세 개의 사무국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, 총괄하는 회장단을 구성하여 조직을 관리함
-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① 교육협력(언어교육, 여름청소년 캠프 등), ② 교통시설 협력(자전거도로 건설, 근거리교통망 연결 등), ③ 관광협력, ④ 군사훈련 협력 등이 있음

<헵(Cheb)시 중앙광장>



□ 구 동-서독간 국경지역의 그뤼네스반트

○ 접견단: 토마스 핀다이스(포크트란트 군청 그뤼네스반트 담당자)

○ 구 동-서독 국경지역의 생태계

- 구 동-서독 간의 국경선은 총 1,393km로 사람의 통행이 불허된 지역이었으며, 인적이 드문 이유로 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었음
- 대부분의 도로는 국경선 앞에서 끝이 났고, 특히 동독의 경우는 안보상의 문제로 매우 제한적인 접근만 허용하고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같이 철저한 규제지역으로 관리하였음
- 이로 인해 동-서독의 국경지역은 희귀동식물군의 서식지로 일반 초지 이외에서 습지, 숲, 호수 등이 보존되어 있음
- 서식하는 동식물로는 검은 황새, 흑뇌조, 검은딱새, 수달 등 매우 희귀한 종들이 다양하게 분포함
-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내독간 국경선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고, 생태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, 이 결과 국경지역의 생태계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받게 되었음
- 예를 들여, 작센주와 바이에른주 사이의 불과 40km 구간에서만 무려 13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그 중 3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인 것으로 확인됨

○ 그뤼네스반트의 개요

- 1979년부터 이미 내독 간 국경지역의 환경 및 자연보호 관련 정보를 수집해 왔던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 연합인 분트(BUND)는 1989년 12월 바이에른주와 작센주 간, 바이에른주와 체코 간 국경에 인접한 접경도시

인 호프(Hof)시에서 동-서독 양측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회동을 주선함

- 이 자리에서 내독 간 국경선을 '그뤼네스반트'로 보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, 이 구역을 독일 DUSR사의 기념비적 장소로 조성하자는 결정을 내림
- 총 117km²에 달하는 그뤼네스반트 중 약 50%의 면적에서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약 16%의 지역이 1급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

<그뤼네스반트의 구 동독의 순찰로(콜로넨백)>



○ 그뤼네스반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협력

- 그뤼네스반트의 생태적 중요성이 대두되자, 국경선 지역의 인접지역들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, 이를 위한 연반주들 간의 경계지역 협력체계가 중요하게 대두됨
- 이런 배경하에서 바이에른주는 작센주 및 튀링엔주와의 경계지역을 따라 총 27군데의 자연보호구역과 31군데의 풍치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
- 일례로 튀링엔주와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바이에른주 오버프랑켄 소재 슈타인아흐탈 보호구역은 바이에른주와 튀링엔주 양측에 걸쳐 총 132km²에 달하는 지역이 자연보호구역으로 편입되었음

.

<그뤼네스반트의 희귀동식물>





<그뤼네스반트의 생태환경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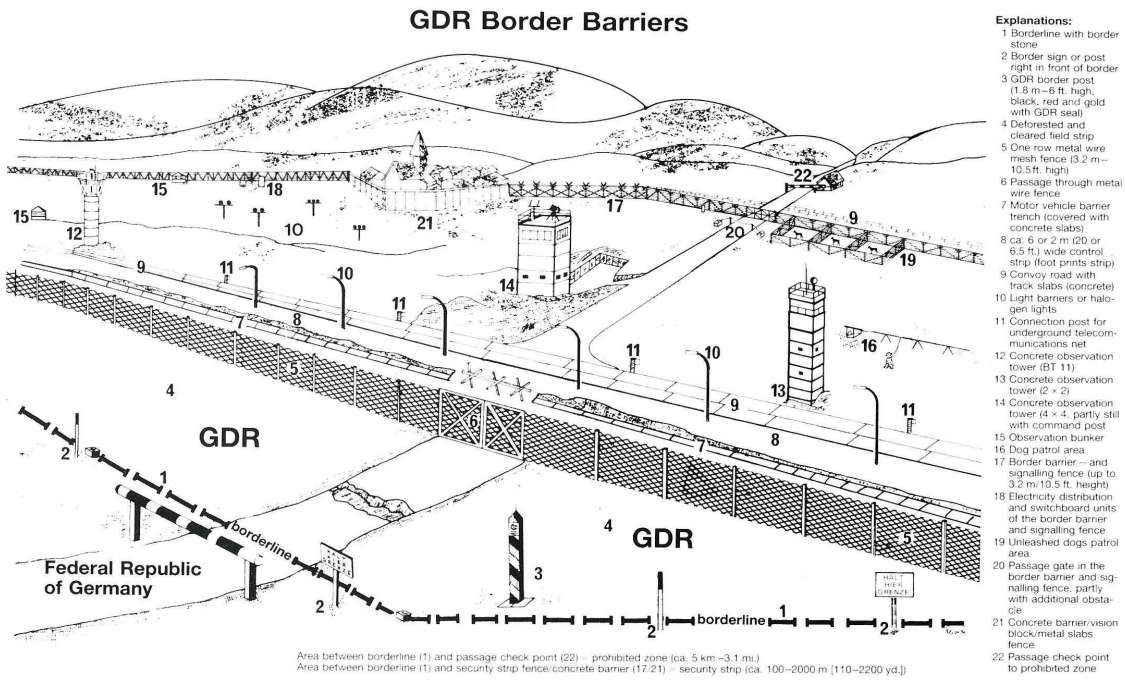



□ 구 동서독 국경마을 뫼들라로이트 현장 견학

○ 뫼들라로이트의 개요

- 구 동-서독의 국경마을인 뫼들라로이트는 마을 한가운데로 바이에른 주와 튀링엔 주의 경계선이 관통하여 분단 초기에는 철조망과 단순한 형태의 장벽을 통해 나뉘게 됨
- 시간이 지나면서 국경시설 및 관리체계가 더욱 정교해 지면서 서독으로의 탈출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었음
- 분단 시절에는 이 지역에는 월경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 동독 측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반대로 서독 측으로는 아무런 제한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았음
- 주요 시설로는 그림의 국경선(①)을 중심으로 동독측으로는 국경선 경계표지판(②), 장벽 또는 철조망(⑥), 자동차 차단벽(⑦), 순찰로(⑨)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

<동-서독 국경지대 개념도>



Landesgrenze zur DDR (information about Bavaria's state border to the GDR), 1988, p. 58

.

○ 뫼들라로이트 박물관

- 통일 이후 뫼들라로이트 접경마을은 철책선, 수색로 등의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, 보수하여 접경박물관으로 활용함
- '리틀 베를린'이라고 불릴 만큼 접경마을로 유명한 뫼들라로이트는 현재에도 전세계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로 자리잡음

<개울을 중심으로 동-서독이 나뉘는 메들라로이트 접경마을>



<메들라로이트 박물관>







5) 7월 3일(금)

□ 오버프랑켄 행정관구 방문: 접경지역에서의 경제 및 환경부문의 조화 및 발전을 위한 전략

○ 접견단: 행정관구장, 지역계획 담당국장, 자연보호 담당관

○ 오버프랑켄 행정관구의 개요

- 오버프랑켄 행정관구는 유럽의 중앙지역으로 독일 분단시 동독의 접경지역이었고, 바이에른의 북동쪽 위치하며, 면적은 7230km^2, 인구는 약 100만명 수준임
- 오버프랑켄지역에는 4개의 거점도시인 바이로이트, 밤베르그, 코부르크, 호프로 크게 구성되며, 지역계획 관련하여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나누어서 계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
- 오버프랑켄지역은 전통적으로 수백년의 역사를 지닌 공업지역으로 자기, 장난감, 섬유산업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20-30년간(통일이후) 상당한 구조변화를 겪어 많은 회사를 문을 닫고 일자리를 줄여야만 했음
- 하지만, 여전히 공업중심의 도시로 유럽전역에서 제 2위의 공업밀집지역이며 인구의 약 50%이 경제활동인구임
- 현재의 산업구조는 자동화 설비, 기계제작, 합성수지, 식음료산업, 도자기산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3차산업 중에서 물류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음
- 실업률은 독일전체의 평균보다는 낮고 바이에른 주 전체보다는 높은 수준임

.

<오버프랑켄 행정관구장과의 접견>



○ 오버프랑켄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원

- 오버프랑켄 지역은 예전 접경지역의 영향이 남아있으므로, 바이에른주 자체에서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,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투자의 10~40%를 지원함
- 오버프랑켄지역은 통일 이전에서는 지리적 위치가 동단이었으나 통일이후 완전한 중앙지대로 변모하게 됨으로써 독일 및 유럽의 중앙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음
- 구 동독지역으로 향하는 도로와 철도망 확충은 독일 연방차원에서 German unification project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여 각종 도로와 철도를 개설하였음

<오버프랑켄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회의>



○ 오버프랑켄 지역의 그뤼네스반트 프로그램

- 독일에서 시작된 그뤼네스반트 프로그램은 핀란드/러시아에서 시작하여 발칸반도(알바니아, 터키까지)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되었음
- 오버프랑켄지역도 이 그뤼네스반트가 지나가고 있고, 그뤼네스반트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유산이 되었음
- 자연보호지구인 그뤼네스반트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주요지역의 도로 건설과 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지역의 입지 등을 들 수 있음
- 하지만, 일반인 뿐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도 그뤼네스반트를 보호하자는 인식은 매우 확고한데 일례로 연방총리가 어느 연설에서 그뤼네스반트를 "자연의 다양성을 지키는 보고인 동시에 독일의 큰재산이다"라고 말할 정도임
- 오버프랑켄 행정관구 내의 그뤼네스반트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관련지자체의 협조하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위험요소를 계속 제지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그뤼네스반트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오버프랑켄/튀링엔 지역의 소요비용은 약 11.5 밀리언 유로로 이는 튀링엔과 바이에른주에서 부담하고 있음
- 그뤼네스반트 보호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, 1단계에서는 2년반에 걸쳐서 기본현황조사와 생태지도 등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, 2단계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약 10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음
- 본 프로젝트의 기본목표로는 첫째, 지역간 바이오톱네트워크를 보전하는데 있고, 둘째는 골짜기 중심의 랜드스케이프를 관리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그뤼네스반트와 연결지어 환경친화적인 관광 수요를 도출하는 것임
- 독일의 그뤼네스반트의 모델을 통해 향후 남북한의 경우에도 DMZ의 보호 관리를 위해 적용할 것으로 사료됨

3. 시사점

□ 접경지역 교류협력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

○ 유럽의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영토분쟁이나 전쟁 등으로 접경국가 간의 신의보다는 경쟁의식이 투철하였음

○ 그러나, 유럽연합의 등장과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접경국가의 교류협력 사업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기본적 바탕이 자리하고 있었고, 특히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 및 주변국가(폴란드, 체코 등) 간의 교류협력은 탄력을 받아 진해중임

○ 독일, 폴란드, 체코 접경지역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유러리전 프로젝트는 서로 간의 정치적 이념을 뒤로하고,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목표아래 기반시설 협력, 산업 협력, 교육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중임

○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북 간 협력 뿐 아니라 주변국가(중국, 일본 등)와의 유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통해 윈-윈의 동반성장 전략을 채택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임

□ 통일 이전의 통일기반 구축 필요

○ 통일 이전부터 독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동독의 기반시설 구축 및 산업성장을 위한 막대한 지원을 함

○ 뿐 만 아니라, 통일 이후에도 동독 측의 기반시설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난 20년간 2조유로(약3600조원)을 투자하였고, 특히 동독의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을 위하여 이 중 40%의 재원이 투자됨

○ 우리나라 역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, 이런 노력이 통일 비용을 절

약하는 효율적인 대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

□ DMZ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그린벨트화

○ 동-서독의 그뤼네스반트는 이제 유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 프로젝트로 성장하여 유럽연합차원의 생태보호 프로그램으로 거듭남

○ 통일 이후 동-서독의 국경선 일대의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해 시작된 그뤼네스반트 지정과 같이 우리나라도 남북간 동서 248km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그린벨트화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, 이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

○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또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의 지정 추진을 통해 국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